

류현진, 시즌 갈수록 더 무서워진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13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의 진화가 계속된다. 류현진(32)이 놀라운 시즌을 만들어 가고 있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116개의 공을 던지며 1피안타 9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시즌 5승(1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의 호투를 앞세워 다저스는 6-0으로 이겼다.

지난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완봉승을 거둔 류현진은 이날도 왼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다.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치는 보더라인 피칭으로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워싱턴 타자들은 류현진에 막혀 안타도 때려내지 못하며 고전했다. 노히트 노련을 이어가던 류현진은 8회 1사 후에야 해리로드 파리에게 이날 첫 안타를 허용했다. 류현진의 피칭을 숨죽여 지켜보던 관중은 노히트가 깨진 순간 기립박수를 치며 류현진을 더 뜨겁게 응원했다.

그야말로 괴물같은 투구다. 류현진은 이날 투수로 시즌 평균자책점 을 2.08에서 1.72까지 낮췄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2위다. 1위는 평균자책점 1.54를 기록 중인 밀워키 브루어스 짐 데이비스다.

홈 경기 무볼넷 행진은 어렵게 끝났다. 류현진은 이날 4회 1사 후 브리어언 도저를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올해 홈에서 내준 첫 볼넷이

워싱턴전 선발 등판 8이닝 무실점 시즌 5승 수확

평균자책 1.72까지 낮춰…전체 메이저리그 2위

차를 시즌 3번째 볼넷이다. 하지만 이 점이 화제가 될 정도로 류현진은 올해 볼넷을 보기 힘든 피칭을 펼치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작년 8월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5회 프란필 레예스에게 볼넷을 준 이후 안방에서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고 있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레이저스터의 밀 플링컨 기지는 류현진이 도저에게 볼넷을 허용하자 자신의 SNS에 "류현진이 훔에서 66이닝 만에 볼넷을 내줬다"며 "레예스에게 볼넷을 내준 이후 도저를 상대하기까지 24명의 타자를 상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칼날 제구를 펼치고 있는 류현진은 놀라운 삼진/볼넷 비율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54개의 삼진을 빼앗아내는 동안 볼넷은 단 3개만 허용했다. 삼진/볼넷 비율은 18.00이다. 이날 볼넷 하나를 내주며 종전 22.5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부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이스 잡는 에이스로서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발휘했다.

이날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2019시즌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이다. 그의 올해 연봉은 3833만3334달러로 류현진의 연봉(1790만 달러) 보다 배 이상

많다.

그러나 몸값은 의미가 없었다. 이 날 경기 전까지 9승2패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했던 스트라스버그는 6이닝 4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물러나 패전투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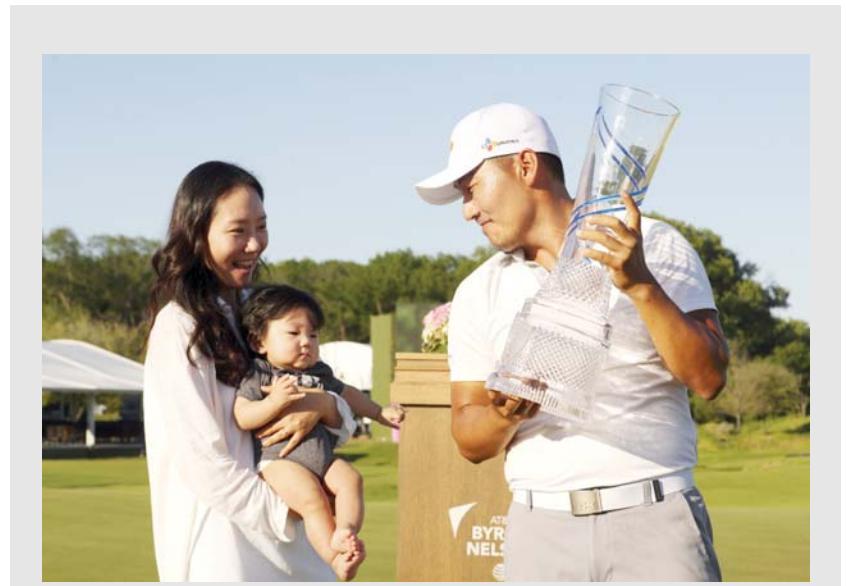
류현진은 올해 에이스를 만나면 더 잘 던지고 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에서는 책 그레이비와 맞대결을 펼쳤다. 류현진은 6이닝 1실점 투수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그레이비는 3%이닝 7실점으로 부진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에이스 매니슨 범가너와도 두 차례 맞붙어 잘 던졌다.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달 3일 류현진 7이닝 2실점 역투로 승리투수가 됐고, 범가너는 6이닝 5실점 난조로 패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일에는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판정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8이닝 1실점 범가너는 6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홈 경기 전승행진도 이어갔다.

류현진은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를 없이 1패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홈에서는 더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까지 홈에서 나선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쟁기며 평균자책점 1.22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훈이 12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댈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GC에서 막을 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부인 양소영 씨, 아들 유진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성훈은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해 공동 2위였던 멧 에브리(미국)와 스콧 피어시(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강성훈, AT&T 바이런 넬슨 우승

PGA투어 8년만의 1승

강성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신고했다.

강성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파 71)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790만달러) 4리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를 쳐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공동 2위 그루인 멧 에브리(미국)와 스콧 피어시(미국·21언더파 263타)를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데뷔한 강성훈은 159번째 대회에서 감격을 누렸다. 이전까지 2017년 셀 휴스頓오픈에서 기

록한 2위가 개인 최고 순위였다.

강성훈은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에 이어 6번째로 PGA 투어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성훈은 2리운드에서 선두에 이름을 걸었지만 3리운드에서 악천후로 인해 1위 자리를 에브리에게 내줬다. 그러나 3리운드 후 반부터 선전하면서 1위를 되찾았다. 4리운드에 돌입한 강성훈은 8, 9, 10번홀에서도 3연속 버디를 잡아낸 후 14, 15, 16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상대의 주격을 뿌리쳤다.

강성훈의 4리운드 드라이버 정확도는 85.71%로 좋았고 80%에 유후하는 그린 적중률을 기록했다.

뉴스

"류현진, 사이영상 후보·최고 투수" 현지언론 극찬일색



LA 다저스 류현진이 13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8회 투구를 마친 뒤 마운드를 내려가자,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왼쪽으로 메이저리그를 시로잡았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1피안타 9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완벽투로 워싱턴 타선을 잡재웠다. 8회초 1사까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노히트 피칭을 펼쳤다. 해리로드 파리에게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아 대기록이 무산됐지만, 류현진의 위력에 현지 언론도 극찬하고 나섰다.

LA 티임스는 "류현진은 시즌 최다

투구수인 116개를 던지며 79개를 스트라이크로 끊어냈다. 5승1패 평균자책점 1.72를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CBS스포츠도 류현진의 올 시즌 성적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류현진이 8회 1사 후 파리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이후 두 타자를 잡아내고 24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1.72로 낮추는 등 올 시즌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라며 이닝당 출루 허용률(WHIP)과 삼진/볼넷 비율도 짚었다. 류현진의 WHIP는 0.73으로 이 부분 1위다. 류현진을 포함해 0점대 WHIP를 기록하고 있는 투수는 4명에 불과하다. 또 54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3개만 허용해 삼진/볼넷 비율 18.00으로 이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다.

K리그2 광주,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

펠리페는 가장 먼저 10호골

K리그(1부리그) 승격을 노리는 광주FC가 천신만고 끝에 시즌 무패 행진을 11경기로 늘렸다.

광주는 12일 부산구역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2부리그) 2019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사실상 승점 6짜리 경기였다. 광주와 부산은 시즌 초반 K리그2 양강 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다. 승점 1을 획득한 광주는 승점 23(승9무1)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 경기를 잡았을 경우 선두로 나설 수 있었던

부산은 승점 21(6승3무2패)로 2위에 머물렀다.

부산이 먼저 0'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호물로의 페스를 이동준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이동준의 시즌 5호골.

동점골을 위해 공세에 나선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펠리페가 골로 연결했다. 펠리페는 가장 먼저 10호골 고지를 점령했다.

FC안양과 안산 그리너스 부천FC와 아산 무궁화는 득점없이 비겼다. 안양은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1만 1098명의 홈 관중을 불러 모았다.

■ 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연 으뜸
가는
구례